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교수칼럼



정진영
국제학 교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정상이 곧 뉴욕에서 만나며,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 국가의 비핵화는 구소련의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었고, 남아공이나 리비아의 경우 자체적인 역량도 낮은 상태에서 핵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뤄진 비핵화였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러한 사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일단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길에 나왔을까?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 때문이라고 흔히 얘기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데 따른 자신감과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도 한몫했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다른 두 지도자들도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제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비확산체제(NPT)의 유지와 같은 대의명분도 중요하다. 외교적 성과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 또한 민주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두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성공적인 타결로 나아가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협상분석에 흔히 사용되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의 논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상대방 협상대표와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합의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협상과 국내협상 양면 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협상안들의 집합/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이 ‘윈셋(win-set)’이다. 협상이 쉽게 타결되려면 쌍방 모두의 윈셋이 커야 한다. 협상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상대방의 윈셋은 늘리고 자기의 윈셋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상타결을 간절히 바라면 자신의 윈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음 주 18~20일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도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다.

셋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윈셋을 줄일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세 지도자의 윈셋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핵무기라는 이슈의 민감성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라는 ‘국가안보의 보검’을 포기하는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려 한다. 선불리 포기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국가와 체제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과거 북핵 협상 실패의 교훈과, 북한이 아직도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두 지도자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문 대통령 역시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늦어질수록 국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만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성실한 신고이다.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윈셋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윈셋을 키워 주어야 한다.

두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자신의 윈셋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타협이다. 국내 협상이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압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의회와 전문가들에게 북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멀고 험하지만 가볼 만한 길이다. 세 정상의 잦은 만남이 서로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려면, 세 지도자가 서로 상대방의 윈셋을 키워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의 윈셋도 더욱 크게 만드는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9월, 10월에 펼쳐질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이러한 선순환의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여마당

쿠캣
김정화(식품영양학 2015) 회장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난학기 끝자락에 우연히 교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시작하며 ‘경희대 고양이’를 뜻하는 ‘쿠캣(KHUCAT)’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에 대한 반응은 흔히 두 가지로 나뉜다. “재밌겠다. 나도 해볼까?”, “그런게 있으니까 맨날 시끄럽게 물어대는 거 아니야? 대체 왜 하는 거래?”

주변 사람들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까지 하며 왜 쿠캣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냐고 묻는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누군가가 나였을 뿐이다.

대학 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고양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활동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부원들에게도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활동하자고 강조한다. 고양이가 급어지 주변에 서식하는 경우가 있기에 급어 장소를 정할 때도 까다롭게 선정했다.

쿠캣의 1차 목표는 교내 길고양이가 굶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추위를 나게 하는 것이다. 동아리에서 급어를 하고 고양이를 돌보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의 핵심은 TNR이다. 쿠캣의 2차 목표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TNR은 Trap(포획), Neuter(중성화 수술), Return(제자리 방사)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 동물법에도 명시돼 있다. 불임수술 후 원래 살던 자리에 방사하고 보살피는 것까지가 TNR이다.

TNR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락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고양이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NR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정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 고양이들이 겪는 성호르몬 관련 질병이나 잦은 임신으로 인한 건강 악화도 막을 수 있다. 즉, 인간의 편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활동이다.

장기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케이프 대학교 사례처럼 캠퍼스에서 길고양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다. 웨스턴케이프 대학교는 동물 복지 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며 TNR과 입양 활동을 진행했다. 결과 400마리에 달했던 길고양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0마리의 노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고양이가 없어 길고양이 동아리도 존재 위기에 처했다는, 슬프지만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

길고양이라고 불리는 펍박란은 존재들이 없어졌으면 한다. 당장 한 두 해 사이에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도 없다. 쿠캣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우리학교가 대표적인 길고양이 돌봄 활동의 성공적 사례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쿠캣은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을 바로잡고 알려가려 한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상생하는 경희대학교와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쿠캣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②

머릿속 연결망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비행기를 타면 늘 좌석 앞의 주머니에 있는 책에서 노선 안내를 퍼본다. 세계 지도 위에 그려진 노선 연결망을 보면서 어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여 비행기가 취항하는지 그리고 어느 노선을 자주 취항하는지를 살펴본다. 자주 다니는 노선일수록 선이 굵고 덜 자주 다니는 노선은 선이 얇다. 최근의 뇌인지 과학에서는 우리의 뇌도 이런 연결망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 뇌의 단어 연결망 자주 쓸수록 강하고 굵어져

뇌는 언어 습득과 함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고유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물론 그 세세함과 복잡함은 비행기 노선에 비할 바가 아니나 뉴런 간 시냅스들의 뾰뾰한 연결망이 우리 뇌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얼마나 자주 접하고 사용했는지는 머릿속의 연결망과 연결들의 굵기가 말해준다. 자주 접하고 사용한 단어들 사이

에는 강하고 굵은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늘고 불안정한 연결망이 형성된다.

우리의 뇌가 처음부터 연결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태어나나 그것들은 연결망의 방향뿐만 아니라 초기의 뇌는 주위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 즉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 연결망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유아의 연결망 형성은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김영주 학장이 추천한 책 <더 브레인>은 BBC에서 방영된 동명의 방송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발전하게 되어 뉴런은 사통팔달로 연결되게 된다.

연결망 형성 시기에 유아의 언어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 유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웅얼이의 길이가 길어지고 웅얼이를 구성하는 소리도 다양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주는 교감이 언어 습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유아의 언어 발달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 비례

유아기에 접하는 언어의 양과 질의 우수함도 언어 습득에 중요하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집단에서 발화량이 많고 표현이 풍부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또래 아동들의 평균보다 2~3 배 정도 어휘 인지가 빨랐다. 들리는 언어에 민감해지고 이에 반응하면서 말을 배우는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연결망을 형성한다.

우리 뇌의 연결망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혹은 학습된 연상에 기초한다. 처음 고양이를 접했을 때 고양이란 단어와 그 의미의 단순한 연결은 더욱 많은 종류의 고양이를 접함에 따라 그 의미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 어린 시절 고양이에게 할름을 당했던 기억은 고양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서움, 긴장 등의 단어를 연결하고 우리 몸이 반응하게 한다. 이렇듯 삶의 경험이 우리 뇌의 연결망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빈번하게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의 성·수 일치(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의 j'aime 등), 혹은 명사와 관사의 성·수 일치(프랑스어의 la chaise 등)를 통해 자주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 사이에도 강한 연결망이 형성된다. 비단 문법에서 만이 아니라 단어 간 사용도 마찬가지다.

‘새빨간 거짓말’과 같이 언어 공동체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두 단어의 연결도 매우 강하여 머릿속에서 굵은 줄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필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간의 연결도 그러한 것이다.

뇌의 연결망은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다

인간의 뇌는 미완의 상태에서 무한한 연결 가능성을 잠재한 채 태어난다. 잠재적 가능성은 성장하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하고 변화한다. 우리의 머릿속 언어가 고운 말로 쉬이 연결되는지 미운 말로 쉬이 연결되는지는 과거의 우리 경험과 생활이 결정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뛰어나 언제든 과거의 것을 넘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뇌의 연결망에 대해서는 신간 ‘더 브레인’에서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